

靑 新현수 사의 표명에 文 대통령, 수차례 반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신현수 수석과 입장 조율을 마치지 않은 가운데 발표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실 내부에서도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 반려된 사실도 소개했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했지만 현재 거취 문제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檢인사 갈등' 신 수석, 청와대 관련 회의는 참석

민정수석실 내 '檢인사' 이견 없어
이와 별개로 민정실 인사교체 예고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들어온 지 40여 일 만에 사의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 간 견해가 다른 가운데 신 수석이 조율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신 수석은 사의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게 현재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신 수석 사의 표명을 연계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 (이는) 신 수석과 뜻이 같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검찰 인사 의견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패상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된 일인데 이를 패상이라고,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은 민정수석까지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의사를 굽히지 않아 민정수석실 개편 작업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정·기획 등 일부 분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한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찰과 갈등 등 여러 문제로 개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체 대상으로 꼽힌 게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상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 이견을 보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과 김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 사의를 표명했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후임 인사를 찾는 과정이 길어져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며 "다른 분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뿌리산업 기술개발에 4년간 1733억 투입

산업부, 신규 R&D 지원과제 공고
올 예산 272억, 신규과제에 129억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핵심축인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뿌리기업 전용 기술 개발사업에 올해 272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4년간 173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의 신규 R&D 지원과제를 2월18일~3월19일까지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소부장 산업의 핵심축인 뿌리산업의 애로해결과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글로벌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부품·모듈에 필요한 핵심 공정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유일의 뿌리기

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733억원 규모(정부출연 1248억원)로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72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규과제 예산은 129억원이다. 사업의 주관기관은 뿌리기업만 가능하고, 과제 컨소시엄에 최소2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또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개발 요청서 등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와 기계·중장비, 전자 등 전방산업의 미래 수요와 기술의 융·복합화 등을 감안, 총 165건의 기술 수요 중 약 8대 1의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21개 과제를 최종 기획·공고했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등 미래 수요 대응,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정기술의 융복합화, 공정의 친환경화 등 제조업 전반의 기술 트렌드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제

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개발 결과물이 직접적인 뿌리기업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요처를 추가적으로 확대·발굴해 과제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했다.

분야별로 용접 분야 신규 지원과제로는 미러리스 카메라 모듈 제작을 위해 고온·복합 진동 등 가혹 환경에도 사용 가능한 센서와 렌즈 등 핵심부품의 정밀 용접·접합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 표면처리 분야에서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기존 크롬(Cr) 도금 및 우레탄 코팅을 대체하는 10종 이상의 금속 질감 컬러구현이 가능한 친환경 건식 표면처리 공정과 장비 개발 등 3개 과제도 신규 과제로 추진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文, 故 백기완 소장 조문 "후배에 맡기고 훨훨 날아 가시길"

유가족, 고인 영상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바 있다.

그동안 고인은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74년 유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독자 민주후보에서 사퇴했고, 1992년 대선까지 독자 후보로 출마한 뒤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인의 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에 묵념하고 영전에 국화와 술 한잔을 올리며 추모한 뒤 유가족도 위로했다.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뵈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입원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전하려 한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 메시지를 보여줬다. 영상에서 고인인 백 소장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를 가기 위한 노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에 주체적 줄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그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본 뒤 "영상을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내년 데이터센터 100개로 확대... 참조표준 1만여건 개발

국표원, 신규 지원과제 공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인 참조표준의 개발과 활용이 강화된다. 참조표준이란 측정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 국가 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사업'을 18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r.re.kr)을 통해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현재까지 26개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재료, 물리, 바이오 등 약 5만4000여 건의 참조표준 데

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다. 참조표준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계돼 뇌경색 분석 솔루션(제이엘케이인스펙션), 자동차 충돌시뮬레이션(KAIST), 안전관리 솔루션(스마트젝) 등의 개발과,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KAIST의 경우 '자동차 고속 인장 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해 차량 충돌 시험을 데이터 기반 가상으로 수행한 결과, 회당 6000만원 정도의 차량충돌 시험비용을 회당 30만원으로 줄이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

국표원은 소재, 환경, 의료 등 분야별 핵심데이터를 측정·수집하는 전문기관을 발굴해 현재 36개인 데이터 센터를 2022년까지 약 3배 규모인 100개

로 확대하고, 사업화연계가 가능한 참조표준 1만여건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 전기·자율차, 지능형 로봇 등 디지털 혁신성장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 물성과 성능 데이터,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의료 데이터 등이 집중 개발 대상이다.

또 2022년까지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조표준을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창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종데이터 간 융합이 가능하고, 참조표준과 관리가 가능한 참조표준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개편, 참조표준 수요자와 생산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쌀값 급등' 이달중 정부양곡 18만톤 공급

쌀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가 1~2월에 총 18만톤의 정부양곡을 시장에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직후 정부양곡 2019년산 6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정부양곡을 37만톤 범위 내에서 공급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달 18일 입찰해 24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1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정부양곡 4만톤 등 12만톤을 공급한 바 있으며, 주로 떡용, 식자재용 등으

로 쓰였다. 이에 따라 1~2월 중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내) 가운데 18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으로, 남은 물량(19만톤 범위 내)은 3월부터 공매를 통해 시장에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급된 정부양곡이 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다. 또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곡 혼합 유통,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